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71. 시온산 위의 144000인

2014. 05. 11.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3장의 기록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짐승의 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4장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4:1~3]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 계시록 13장 내용을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4장을 이야기할 차례가 된 것 같은데 14장도 짧은 내용은 아니지요?

답: 예, 목사님도 이미 아시는 대로 14장은 144000인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우리교회에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같은 시기에 병행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이는데, 13장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어느 시점부터 14장 사건이 시작되고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장의 예언된 역사적 사건이 진행되기 위하여 7장에서 인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여섯째 인을 떼 후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있을 사건이었지요. 거기 인 맞은 사람이나 12장에서 형성되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 동일한 무리들로 보이는데, 그들이 수행하는 사업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생각됩니다.

2. 어떻게 7장에 인 맞은 자들과 12장에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이 동일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지요?

답: 왜냐하면 144000명이 7장에서 형성되는데 14장에서 나타났습니다. 12장 끝에 기록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에는 남은 자손과 싸우는 용의 대리자가 두 마리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이 짐승들은 세상에 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합니다. 14장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144000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7장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에 대하여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4000인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동일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

로도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는 사건이니까 같은 시기가 됩니다. 여섯째 인을 뿔 때에는 천연계의 징조들이 나타났잖습니까. 큰 지진이 난 때가 1755년이고 해가 어둡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때가 178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260년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성립되는 시기와 같지요. 이렇게 예언은 잘 들어맞는 퍼즐 같이 딱 들어맞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설명은 들으니까 그렇군요. 참 아주 절묘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지요.

답: 예, 성경구절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계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 산에 서 계시는 어린양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어린양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5장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바로 그 어린양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분은 혼자 계시지 않고 144000인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12:17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둘 다 서 있습니다. 용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세상의 세력들을 배경으로 서 있고, 그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바다짐승과 땅 짐승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어린양 예수님은 144000명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12장 13장과 대치하는 국면입니다. 용은 12장에서 천사 3분의 1을 자기편으로 하여 미가엘과 대치했습니다. 그때는 수적으로도 사단이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단이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용을 비롯한 맹수인 바다짐승과 비록 어린양처럼 일어났으나 용처럼 말하는 짐승은 다 맹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의 어린양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력의 왕입니다. 이 두 진영은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서로 대치하고 투쟁하여 최후의 승리를 가름하는 세력입니다.

4. 목사님, 시온 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답: 시온 산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약간씩 차이가 났습니다. 즉 유대의 포로 시대 이전에는 유대의 전 영토와 이스라엘 전 족속을 의미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는 성전과 예루살렘성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구약성경과 예언서에서 시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를 상징했습니다(시48:1; 사24:23; 율2:32; 미4:1,7). 이러한 배경을 가진 시온 산에 대하여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실제적으로 지상에 있는 땅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2) 영적인 세계인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명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히12:22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에서 시온을 하늘의 예루살렘과 관련시켜 설명합니다. (3) 지상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히12:22의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갈4:26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시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구속 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전형이나 모델로서 제시된 것이라

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린양은 잠시 두고 144000인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용과 13장에 등장한 짐승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무리일 수 없지요. 이들은 이 용의 무리들과 싸울 때에 큰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희게 보존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용과 싸우기 위하여 서 있는 장소는 하늘이 될 수 없지요. 그래서 첫째는 시온 산이 144000인의 모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장면은 승리하신 어린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를 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 산은 두 사실을 다 나타내는 계시적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용의 무리들과 싸우는 무리들의 모임이고, 다음은 그들이 확실히 승리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반드시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절에 거문고 타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보좌 앞과 생물과 장로들 앞이라고 하여 하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것은 그들을 도우시는 봉사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5. 144000인에 대하여서는 7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의 무리들은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 무리들은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만 있습니다. 그 것은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고 한 그 인의 내용입니다. 그 인에는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인을 맞은 144000인의 이마에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인에는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확실하지요. 이것은 7장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마라는 표현에 대하여서도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곳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린양과 그 아버지로 꼭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6. 그런데 목사님,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입니까?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까? 즉 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이름은 하나뿐입니다. 여기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름이라는 말은 각각 단수인데, 어린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단수를 썼다고 생각되지만 마태 28:19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름이 단수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셋인데 이름은 단수이기 때문에 이 세분의 이름이 동일한 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이지요. 144000인은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따라 활동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름에 대하여서는 7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에 대하여 사단의 무리들과 투쟁을 합

니다. 이 이름을 합당하게 증거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세 천사의 기별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7. 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답: 예, 다음 구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계14:2,3]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이 들었던 소리라는 말은 1:15절의 “음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묘사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가는 3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144000인의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는 크고 우렁찬 소리를, 큰 뇌성은 위엄과 승리를, 거문고 타는 소리는 아름다운 선포와 조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늘의 찬양은 크고 위엄차고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환희에 찬 노래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상에서의 승리와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용의 무리들과 대결해서 완전하고 확실한 승리를 한다는 것을 이미 승리한 상태로 계시해주신 것입니다. 승리는 144000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144000인을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정합니다. 그들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쉽지 않습니다. 새 노래가 무엇인가도 이해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교회에서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한 승리와 구원의 경험을 친히 했기 때문에 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주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새 노래”는 5:9의 “새 노래”와 병행을 이루는데요,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한 것은 이 노래가 오직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무리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죄 가운데 있는 옛 사람들은 배울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식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새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2:17; 롬 8:1-6; 12:2).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144000인은 “구속함을 얻은 자” 원어로 “호이 에고라스메노이”인데, “에고라스메노이”는 시장에서 사왔다는 뜻입니다. 즉 땅의 모든 족속 중 계5:9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5:9의 “사서”라는 말이 “에고라사스”로서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인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7:4-8)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지요.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교회에서는 구원받은 무리들 중에서도 큰 환난을 통과하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경험이 없이는 배울 수 없는 노래라는 뜻으로 말하지요. 저는 이제 말한 주석적인 설명이나, 또 환난을 통과하는 경험적인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 이 구절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144000이라고 한 말씀을 보면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144000인이라는 상징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떤지요?

답: 이 구절에 의하여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장 끝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과 13장의 두 짐승의 공격의 대상이 된 사실을 생각하고, 또 144000인의 형성 시기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라는 역사적 시기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에 창조 이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고 보기에는 석연하지가 않지요. 더구나 7장에는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세상에 살고 간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낸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4000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형성되는 무리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어느 역사적 시기에 특별히 형성되는 무리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상황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늘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때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되는 시기, 또 여섯째와 일곱째 인 사이의 기간 이 셋을 연관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창조 이후 구원받은 모든 무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방금 말한 그런 역사적 시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록된 내용의 여러 요소들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면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각자가 144000인에 포함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당연합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144000명에 포함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시다. 그 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 무리에 포함되는 것인지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14:4,5]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 144000인의 특성이 기록되었습니다. 첫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일까요? 여자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와 놀아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 예언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여자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계시록에는 여자가 셋이 나옵니다. 2장에 이세벨,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 17장에 금잔을 들고 있는 음녀입니다. 더럽힌다는 말은 그 여자가 더럽힐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연적으로 12장의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빠집니다. 남은 것은 이세벨과 음녀입니다. 이것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선지자입니다. 13장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19:20에는 거짓선지자로 설명된 것은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선지자에게 속지 않았고 음녀에게 붙잡힌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교회들 중에 성경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교회에 몸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정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르데노스입니다. 이것은 순결한 처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로 표상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둘째로는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미가 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린양 예수께서 인도하는 곳은 거부하지 않고 꺾부리지 않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따라가며 생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양이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할 만한 일입니다. 계시록에서 어린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은 속죄의 피를 흘린 양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성소에 속죄를 위하여 갈 때에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주로 양이었지요. 죄인이 양을 몰고 성소로 가는데,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양을 몰고 가는 것입니까 양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는 사람이 양을 끌고 가는 것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양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양이 죽고 그 피로 속죄 선언을 듣게 합니다. 이것이 양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따라간 결과입니다. 7장에서 144000인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7:14) 그러므로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에는 언제든지 속죄의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44000인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입니다. 어린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속죄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진리교회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언제나 어린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들이며 그 결과로 어린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10. 아하, 어린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씀에 그런 뜻이 있었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인도하는 데는 그곳이 고통스러운 곳이든지 환난의 장소이든지 불문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예, 그것도 맞지요.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속죄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면서 옷을 희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고 그 설명이 딱 맞는 설명인 것 같고 아주 은혜가 넘치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지요.

답: 다음 셋째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았다는 말은 아까 설명한 “사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어린양이 피로 샀기 때문에 어린양은 자기가 가는대로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뜻하는 말인지 정확하지 않는데요, 아까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에 대하여 말했지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이 샀다는 말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사람”은 이 지구상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함을 받은 사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음녀나 거짓선지자에 속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설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자로 더불어 더

럽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설명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11. 참 아름다운 설명이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답: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성물”을 의미하였고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수확물”을 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한 말씀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좋은 뜻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전15:20,22,23]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말씀에서 첫 열매는 부활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 목사님, 시간이 되었군요.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질문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쳐야 하겠거든요.(감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시록 14장에 기록해 주신 144000인과 관련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무리들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참된 신자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